

콜럼버스 교구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본당주소: Holy Family Church 584 W. Broad St. Columbus, OH 43215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 베드로 신부 (badackk@yahoo.co.kr, 614-961-0980)

- * 주일미사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평일미사 : 매주 금요일 오후 5시30분
- * 유아세례 : 매월 둘째 주일 미사 후 * 병자봉성체 : 매월 셋째 주일 미사 후

본당 소식

◆ 설날 합동 위령미사 및 구역별 율놀이

- 오늘 미사 후 함께 식사를 하고 구역별로 율놀이를 합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한마음이 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 구역별 가정 면담

- 공동체의 사무행정 및 재정 확립과 신자들의 신앙생활 지도를 위해 신부님 면담을 합니다.
- 일시: 2월 1일부터 매주 주일 미사 후
- 장소: Parish Center 내 신부님 집무실
- 면담순서: 김효임 구역, 김제준 구역, 정하상 구역, 황석두 구역, 이호영 구역
- 지참물: 교적, 교무금 약정서, 신앙현황서
- * 지참물은 구역장을 통해서 배부됩니다. 신부님 면담 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면담

- 일시: 2월 6일부터 매주 금요일 평일 미사 및 각 단체 모임 후
- 장소: Parish Center 내 신부님 집무실
- 면담순서: 상지의 옥좌, 성가대, 청년성서모임
- * 지참물은 구역별 면담과 같습니다.

◆ 본당 재정위원 교육

- 일시 및 장소: 1월 31일(토) 저녁 7시, 사제관

◆ 김효임 구역 안내

- * 학생 부부 중 아직 구역에 편성되지 않으신 분은 김효임 구역장, 안유신 레오 형제님에게 연락바랍니다. (ahnysleo@gmail.com, 614-203-5046)

◆ 정하상 구역 모임

- 일시: 1월 31일(토) 저녁 7시 30분
- 장소: 김오경 안드레아 형제님덕 7713 Kestrel Way West Dublin, OH 43017 (614) 793-2245

◆ 황석두 구역 모임

- 일시: 1월 31일(토) 저녁 6시 30분
- 장소: 고상식 야고보 형제님덕 4010 Laurel Valley Dr. Powell, OH 43065 (740) 881-3120

◆ 친교 준비 봉사자

- 1월 25일: 성모회 2월 1일: 신현태

◆ 1월 친교 후 정리 봉사: 김효임 구역

- ◆ 2009년 매일미사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김상욱 안토니오 형제님 (614-804-8793)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 무 금: 김태훈 연도흙 사윤진 양희진 정동완 최준표 조도순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Korean Catholic Community

설날 합동 위령미사 January 25, 2009



<최후의 심판 (부분) >

프라 안젤리코 (1395-1455), 템페라, 산마르코 미술관, 피렌체, 이탈리아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주 일 헌 금	\$520.00
교 무 금	\$1090.00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민수기 6,22-27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화답송



제 2 독서 야고보서 4,13-15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나날이 주님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 알렐루야

복음 루카 12,35-40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공동체를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

- 지향1) 공동체 자체 건물 마련을 위한 지향
- 지향2) 공동체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
- 지향3) 공동체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

구역	지난 주일	합계
김제준	단 명	3,835단 26명
이호영	173단 2명	16,116단 99명
정하상	단 명	3,485단 77명
황석두	단 명	7,460단 78명
김효임	단 명	1,171단 29명
기타	단 명	130단 3명
미사중	단 명	12,109단 10,315명
	173단 2명	222/04-1/18/09 (257주)

☎ 총누계: 208,661단 12,726명
묵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



봉사자 안내

	1월25일	2월1일
해설자	김오경	고상식
독서/봉헌	김제준 구역	김효임
보편지향 기도	평화의 모후	상지의 옥좌

오늘의 성가

♫ 입당: 226 ♫ 봉헌: 215
♫ 성체: 153 182 ♫ 파견: 416

생명의 말씀

나를 따라 오너라

장광재 요아킴 신부 / 서울대교구

25년 전 신학교에 가기 위해 입학원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썼는데 한 가지를 못 쓰고 원서를 내려 갔습니다. 힘들었던 문제는 ‘신학교 입학동기’란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원서를 내기 전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특별히 이게 ‘답’이다 할 만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기도와 고민을 한 끝에 그 작은 칸에 ‘이끌림’이란 단어를 쓰고 아쉬운 마음으로 원서를 내고 온 기억이 납니다. 신부가 된지도 두 자리 숫자로 바뀐 지금 그때의 기억이 날 때마다 주님께 감사 드리곤 합니다. 어린 나이에 그래도 괜찮은 답을 썼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갈릴래아에 가시어 복음을 선포하시며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좀 더 가시다가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도 같은 모양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네 명의 사도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주님의 뒤를 따랐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에 등장하는 인물로 예수님과 네 명의 제자들 그리고 남겨진 아버지와 사촌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각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살피다가 이 인물들 속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취해야 할 역할들이 전부 나타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결혼 성소건 성직, 수도성소건 독신이건 상관없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입니다. 이들이 곧 주님의 뒤를 이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제베대오와 사촌처럼 떠나는 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역할도 필요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아무 조건 없이 품어 안아주는 가족들과 동료들이 있어야 합니다. 헤어지는 아픔과 슬픔을 묵묵히 견디어 내며 떠난 이를 위해 참아주며 삶의 자리를 지키는 이들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복음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이를 발견하면 기꺼이 그에게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으로 초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에는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세 가지의 역할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어느 피정 중에 떠오르는 해가 아름다워 무심코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잠시 본 것뿐인데 고개를 돌려 속소로 가려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태양을 오랫동안 보면 앞을 볼 수 없듯이 하느님을 자주 바라보면 세상의 욕심이나 유혹들도 볼 수 없게 되겠구나, 혹은 내가 세상의 유혹에 힘들어하는 것은 하느님을 자주 바라보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었구나.’

내일은 우리의 고유 명절인 설날입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세 가지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다짐과 주님을 자주 바라보겠다는 결심을 하는 시간이길 바랍니다.